

# 분만유형에 따른 초산모의 분만경험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비교

조 선 영 · 고 효 정

분만유형에 따른 초산모의 분만경험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비교:본 논문은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임

조선영:경북대학교 응급실 간호사

고효정: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I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생주기에 있어서 임신시기는 여성 자신에게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하여 개인의 발달과 성숙의 기회가 될 뿐 아님 태아에게는 선천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여 출생후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시기이다(김혜원, 1996).

분만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초산모와 가족구성원의 신체, 정신 및 사회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Kitzinger, 1972). 특히 첫 아기의 분만은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로 작용하여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자녀의 일생에 있어서 초기 어머니 역할은 영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상적인 모아관계를 발전유지하고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하영수와 이경혜, 1992).

분만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및 분만과정을 극복하려하며 힘있고 즐거운 행위로 지각하고 받아들이는지 혹은 상해를 동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의 일부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반응은 다양하다(조미영, 1988;Kitzinger, 1978).

긍정적인 분만경험은 분만 후 어머니 역할수행에 있어 자신감 및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시킨다(Lederman & Weigarten, 1981). 부정적인 분만경험은 부모로서의 역할 전환 단계에서 어머니로서의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여 어머니 역할 적응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이 장애를 초래한다(Cropley et al., 1976; Laufer, 1990; Mercer, 198a,b; Rubin, 1967a). 따라서 간호사는 산모에게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가질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산욕초기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이 크며 가족의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불안한 시기로서 현실과의 분리가 일이나 어머니로서의 정체감과 자신감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로 보고하였다(Ludington-Hoe, 1977). 일반적으로 분만후 한달쯤에 영아의 특성과 양상을 학습하게 되어 영아와 관련된 자신에 대해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Walker & Montgomery, 1994). 따라서 이 시기는 초산모와 영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간호사는 산모가 요구하는 건강교육과 간호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만경험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초산모에 관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분만유형에 따른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관한 비교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만 유형에 따른 산욕초기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성숙해위기 혹은 상황위기인 분만과정과 산욕기 동안의 초산모의 간호중재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유형(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에 따른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분만 유형에 따른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알아본다.
- 2) 분만 유형에 따른 초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차이를 알아본다.

## 3. 연구의 가설

1) 정상분만 초산모 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2) 정상분만 초산모 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2-1) 정상분만 초산모 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2-2) 정상분만 초산모 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아기와 동일시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 ① 이론적 정의

개인의 분만사건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해를 의미한다(조미영, 1988).

#### ② 조작적 정의

Marut와 Mercer(1979)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척도를 조미영(1988)이 우리나라 산모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2)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과 아기와 동일시감으로 구성되어 있다(Walker & Montgomery, 1994).

#### (1)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SD Self: Myself as Mother)

##### ① 이론적 정의

어머니·영아간의 관계체계에서 어머니로서의 인지와 정서를 말한다. 즉 어머니 자신의 자아 체계 안으로 임신경험을 결합시켜 이상적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순화시키고, 희망한 특성이나 바램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맡아야 하는지 아는 것을 말한다(이혜경, 1992).

②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Osgood 등 (1957)과 Walker(1977)에 의해 개발, 발전된 도구를 고 효정(1996)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2) 아기와 동일시감(SD Baby : My Baby)

##### ① 이론적 정의

어머니·영아간의 관계체계에서 어머니로서 아기에 대한 정적인 반응(affective response)을 말한다

(Walker & Montgomery, 1994).

##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Osgood 등(1957)과 Walker 등(1977)에 의해 개발, 발전된 도구를 고효정(1996)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 문헌 고찰

### 1.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인간은 위기에 대항하여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균형을 되찾아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건이나 경험 혹은 상황에 대한 지각이며, 인간의 행동과 반응은 이러한 지각에 기초하여 나타난다(김태임, 1990; Hart, 1980; Hoff, 1978; Mead, 1964).

지각은 물체, 사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며 현실에 대한 개념작용 혹은 이미지이다(조미영, 1988). 인간이 자신이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보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상에 대한 지각된 세계는 다를 수 있고, 각 개인이 자기의 지각환경으로부터 취사 선택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행동과 반응들로 표현된다(김수지, 1985; Donna et al., 1961).

분만은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대처기전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첫 분만인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만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혹은 위기에 대처하는 일련의 적응기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대처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ranley et al., 1983; Hoff, 1978).

산모의 긍정적인 분만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결혼기간, 임신희망여부, 역할 자신감, 성역할에 대한 태도, 부부관계의 밀접성,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지지 상태, 산모자신이 양육받았을 때의 돌봄의 양상, 임신 및 분만과정 중 받았던 지지의 종류와 가족관계, 모자동실, 산전교육, 분만형태 등 많은 요인이 있다(박영숙, 1987; 신기수, 1996; 안숙희, 1990; 정귀애, 1994; 조미영, 1988; Augilera et al 1977; Fitzpatrick, 1984; Hart, 1980; Lindell, 1988; Marut & Mercer, 1979; Norr et al., 1977).

산과력에 따른 분만경험에 따른 지각을 보면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부정적인 분만경험을 하는 반면에(안혜숙, 1976), 일부 연구에서는 경산모 초산모보다 예상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정원, 1974).

부정적인 분만경험 지각으로 인하여 어머니 역할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자녀에게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영아에게 이름지어 주기를 꺼리거나 산후우울증이 심화될 수도 있다(Laufer, 1990; Mercer, 1985). 실제로 Lynch와 Robert(1977)는 피학대아 어머니들의 분만 형태를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분만 어머니가 정상분만 어머니 역할 수행과 관련된 분만경험 지각을 살펴보면 분만동안의 사건은 여성의 자존심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분만경험은 어머니 역할 적응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Peterson & Mehl, 1978; Prionce, 1977).

조미영(1988)의 연구에 의하면 분만경험 지각과 모아상호작용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분만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에 따라 모아 상하작용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였고, 안숙희(1990)은 대부분의 산모는 분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출생아가 남아이거나 처음 분만한 산모에게서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박영숙(1991)은 분만경험의 통증 때문에 다시는 분만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분만이 끝나고 아기를 본 후에는 거의 모든 산모가 분만고 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비슷한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분만경험도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임부는 임신과 분만동안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정보의 부족으로 불

필요한 공포나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간호제공자들은 이러한 임부의 공포, 불안을 사정하고 완화시켜 대응해 나감으로써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2.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정체감이란 개인이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지하며 동일시와 사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 통합과정인데, 특히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motherhood)은 여성 자신의 정체성 탐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Erickson, 1968). 각 개인은 가족을 비롯한 여러 대인관계속에서 사회화 되어 가고 자아발달을 수행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여성으로서의 자기”, “어머니로서의 자기”식으로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고 했다(서봉연, 1975). 즉 여성은 첫 영아의 분만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자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Lederman, 1984). 분만후에 초산모는 영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태도, 신념, 책임감을 가지므로 초산모의 정체감은 여성과 아내의 정체감에서 여성, 아내,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으로 재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게 된다(Lederman, 1984).

Rubin(1984)은 임신한 부인을 관찰하여 어머니 역할의 획득과정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어머니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모방, 역할놀이, 환상, 투입-투사-거부 혹은 수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정체감은 이미 임신을 계획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임신후 장차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발전하여 산욕기말경에 확고해지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진되어 간다.

이은희(1995), Rubin(1984), Walker(1992)도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부모로서의 전환이론으로 볼 때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분명 임신의 시작부터 발전되어 나간다고 주장하였고, 어머니 정체감은 모아간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Rubin, 1984; Walker et al., 1986b).

Sheehan(1981)은 어머니 역할획득이 있어서 역할지각의 외적요구와 기대의 자아상(self image)인 내적요구가 합해져서 이 두가지 요구가 맞아 떨어질 때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자아상의 갈등이 크면 정체감의 혼돈이 증가되어 어머니 역할획득이 지연되고 영아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Walker와 Montgomery(1994)는 분만후 산모가 자신에 대하여 안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상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정체감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사회 경제적 상태, 교육수준, 임신 희망여부, 임신기간, 결혼 기간, 취업유무, 모성에 대한 가치(임신, 출산,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하는 가치정도), 모성 관련 지식(예비 어머니로서 학습해야 할 어머니 역할에 관련된 지식)등이 있다(고효정, 1996; 김혜원, 1996; Walker et al., 1986b), 특히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하게 우는 영아는 어머니에게 긴장과 불안을 낳게하고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다(Newton, 1983; Zabielski, 1994). 기질적으로 어려운 영아의 양육은 어머니로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고,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로서 부적절하다는 느낌과 우울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Cutrona & Troutman, 1986). 그러므로 영아는 어머니가 정체감을 인식하는데 수동적인 결과를 내는 것부터 능동적인 언어(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말함)를 통해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형성되도록 돕는다. 영아는 행동-상호작용 파라다임에서 어머니 역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능동적인 역할조정자일 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체감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는 존재라고 하였다(이은숙, 1987). 즉 초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시기는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과 발달과정을 겪게 된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어머니로서의 자질, 성향, 태도로서, 보통 분만하지 한달재인 4주경에 형성되며, 어머니로서 역할에 중요하다. 그리고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II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의 분만 유형에 따라 분만경험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비교하는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1998년 6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대구 시내 소재한 K대학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 92명으로 하였다. 대상 산모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동일한 병실에서 간호를 받으며 분만후 모자동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혼의 건강한 모성으로서 연령 20-34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국문해독이 가능한 초산모.
- 2) 임신기간 37-42주(대한산부인과학회, 1997), Apgar score 7점 이상 및 체중 2.6-4.2kg인 첫 아기를 정상분만하거나 제왕절개분만 한 초산모.
- 3) 임신, 분만, 산욕기에 합병증이 없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초산모

#### 3.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은 1998년 6월 1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예비조사와 본조사(산후 1-2일, 산후 4주)를 하였다. 자료수집시기를 산후 1-2일, 산후 4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산후 1-2일은 초산모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어머니 역할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기(하영수와 이경혜, 1992)이고, 산후 4주는 초산모에게는 신체적·사회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이면서 영아에 대해서는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적응되는 시기(Jensen & Bobak, 1981)이기 때문이다.

##### 1) 예비조사

대구광역시 소재하는 K대학병원에서 첫 영아를 분만한 초산모 30명을 대상으로 1998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서는 대상자의 설문지 내용의 이해정도, 문항검토, 문항흐름 및 용어 선택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 2) 본조사

###### (1) 일차조사

정상분만 혹은 제왕절개분만후 1-2일이 된 초산모에게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대상자의 눈의 피로를 감소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읽어주면 대상자가 설문지를 보면서 자가보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가보고한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분만에 대한 지각,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었고, 산과적 및 영아의 특징은 기록지를 통해 본 연구자가 수집하였다. 이차조사시 대상자의 탈락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집, 친정집, 시집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대상자의 동의하에 알아두었다.

###### (2) 이차조사

대상자가 산후 4주가 되기 4-5일전에 연구자는 대상자의 집으로 미리 전화하여 이차 설문지의 발송을 알리고 작성요령을 알려주었다. 설문지의 봉투속에는 이차 설문지, 회신봉투를 넣어서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조사내용은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었다.

회신시기에 이차설문지가 회송되지 않을때는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빠른 우송을 부탁하였다. 이차설문지를 반송받는 즉시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의 연구 협조에 감사한 후에 조사를 종결하였다.

총 9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차조사 때에 92부가 모두 수집되었으나, 이차자료 수집시에 6명(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이 탈락되어(탈락율 6.6%)총 자료 분석은 86부로 하였다.

#### 4. 연구 도구

일반적 제특성(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포함)21문항,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27문항,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17문항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 1) 분만경험 지각 측정도구

초산모의 분만유형에 따른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arut와 Mercer(1979)가 개발한 분만경험 지각 척도(Perception of Birth Scale, 1979)를 조미영(1988)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분만과정(labor)영역에 관한 12개 항목, 분만(delivery)영역에 관한 12개 항목, 영아(baby)영역에 관한 3개 항목 총 2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대체로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로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경험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계수는 Mercer(1979)연구에 .83, 조미영(1988)의 연구에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예비조사(N=30)에서 .80이었으며, 본 연구(N=86)에서는 .83이었다.

#### 2)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측정도구

어머니로서 정체감 도구는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도구와 아기와의 동일시감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 (1)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SD Self: Myself as Mother)

Osgood 등(1957)에 의하여 개발된 어의구별척도를 Walker(1977)가 발전시킨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SD Self: Myself as Mother)측정도구를 고효정(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정체감과 부정적 정체감을 나타내는 모두 7점 척도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Qalker(1982)의 연구에서 .81, .85, 고효정(1996)의 연구에서는 .81-.8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예비조사(N=30)에서 .84이었으며, 본 연구(N=86)에서는 .80, .85이었다.

##### (2)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SD Baby: My Baby)

Osgood 등(1957)에 의하여 개발된 어의구별척도를 Walker(1977)가 발전시킨 아기와의 동일시감(SD Baby: My Baby) 측정도구를 고효정(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로서의 아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모두 7점 척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Walker(1986)의 연구에서 .77, .85, 고효정(1996)의 연구에서는 .70-.80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값은 예비조사(N=30)에서 .70, .67이었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를 사용하여 전산 분석 하였다.

- 1) 분만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제 특성은 동질성 검정의 위해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 2) 분만유형에 따른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분만유형과 조사시기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검증하기 위해 t-test,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분만경험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IV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제 특성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두 집단간의 동질성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86명중 정상분만 초산모 46명(51.7%),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40명(48.3%)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정상분만 초산모 80.4%(37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75.0%(30명)가 25-29세이고, 평균 연령은 27.9세이었다. 결혼기간은 정상분만 초산모 43.5%(20명)는 13-21개월이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42.5%(17명)는 22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9.5개월(10.7)이었다.

학력은 정상분만 초산모 43.5%(20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38.0%(16명)가 대졸로 가장 많았고, 직업에서는 정상분만 초산모 60.8%(28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65.0%(26명)가 직장을 가지지 않고 있었으며, 종교는 정상분만 초산모 50.0%(23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47.5%(19명)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월수입은 정상분만 초산모 52.2%(24명), 제왕절개 분만 초산모 65.0%(26명)가 101-200만원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평균 월수입은 164.6만원이었다.

가족형태는 정상분만 초산모 69.3%(32명), 제왕절개분만초산모 82.5%(33명)가 핵가족이었고, 결혼만족상태는 정상분만 초산모 97.8%(45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97.5%(39명) 대다수가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생활수준은 정상분만 초산모 93.5%(43명), 제왕절개 분만초산모 95.0%(38명)가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출생순위는 정상분만 초산모 52.2%(24명), 제왕절개 분만 초산모 37.5%(15명)가 장녀로 가장 많았고, 현재의 건강상태는 정상분만 초산모 54.4%(25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55.0%(22명)가 '보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불건강'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두 집단 모두에서 3.5%(3명)뿐이었다.

정상분만 초산모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동질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chi^2$ -test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하게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및 두집단간의 동질성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임신 희망여부는 정상분만 초산모 89.1%(41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90.0%(39명)가 원하는 임신을 했었고, 원했던 분만형태는 정상분만 초산모 95.7%(44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87.5%(35명) 대부분이 정상분만을 원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제왕절개분만을 원했던 초산모는 8.1%(7명)뿐이었다.

희망 아기성별 정상분만 초산모 67.4%(31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85.0%(7명)가 남아를 원했고, 두 집단 모두에서 분만후 실제로 태어난 성별은 남아 54.5%(47명), 여아 45.4%(39명)였다.

퇴원후 영아에게 먹일 수유형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모유수유가 많았다. 즉 정상분만 초산모 50%(23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55%(22명) 모두 모유수유를 많이할 계획이었다. 퇴원후 조력자는 친정어머니가 74.4%(64명)로 가장 많았다.

산전간호는 정상분만 초산모 93.5%(43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97.5%(39명) 대다수가 규칙적인 간호를 받았으나, 정상분만 초산모 82.6%((38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72.5%(29명)는 산전 교육 참여하지 않았다.

영아의 체중은 정상분만 초산모 54.4%(25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35.0%(14명)가 3.0-3.4kg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평균 영아체중은 3.3kg 이었다.

재태기간은 정상분만 초산모 76.1%(35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62.5%(25명)가 38-40주 사이에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452$ ). 평균 재태기간은 39주 5일이었다.

분만이 시작되어 끝나는 전과정 동안 가장 통증이 가장 강할 때를 1-10점으로 표기하는 VAS(문정순, 1997)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분만 초산모는 9-10점이 65.2%(30명),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는 7-8점이 45.0%(18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정상분만 초산모는 평균 8.8점, 제왕절개 분만 초산모는 평균 8.1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의 산과적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chi^2$ -test로 분석한 결과 재태기간을 제외한 산과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하게 나타났다.

## 2. 가설 검증

가설 1.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의 검증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초산모의 분만유형에 따른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정상분만 초산모 89.3(10.6),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76.5(13.6)로 정상분만 초산모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4.88$ ,  $p=0.000$ ). 따라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2.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 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는 가설 2-1과 가설 2-2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가설 2-1.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 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시기별 분만유형에 따른 두 집단간의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의 차이 및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식별 분만유형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차이 검증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산후 1-2일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평균점수(표준편차)는 정상분만 초산모 52.2(6.0),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51.5(7.0)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0.47$ ,  $p=0.637$ )가 없었다.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평균점수(표준편차)는 정상분만 초산모 54.9(8.4), 제왕절개 초산모 61.6(6.0)으로 두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t=-4.21$ ,  $p=0.000$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가설 2-2.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시기별 분만유형에 따른 두 집단간의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의 차이 및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시기별 분만유형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 차이 검증은 <표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산후 1-2일에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 평균점수(표준편차)는 정상분만 초산모 32.6(5.1),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29.3(4.5)로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15$ ,  $p=0.034$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 V. 논의

### 1. 분만유형에 따른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 표 1 > 분만유형별 대상자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평균 비교 (n=86)

| 구 분  | 정상분만<br>M(±SD) | 제왕절개분만<br>M(±SD) | 전 체<br>M(±SD) | t    | p     |
|------|----------------|------------------|---------------|------|-------|
| 분만과정 | 36.5(± 4.9)    | 36.2(± 5.8)      | 36.4(± 5.3)   | 0.27 | 0.786 |
| 분 만  | 40.1(± 6.9)    | 30.7(± 7.9)      | 35.7(± 8.7)   | 5.86 | 0.000 |
| 영 아  | 12.7(± 1.8)    | 9.5(± 1.6)       | 11.2(± 2.3)   | 8.44 | 0.000 |
| 지각총점 | 89.3(±10.6)    | 76.5(±13.6)      | 83.4(±13.6)   | 4.88 | 0.000 |

< 표 2 > 조사시기별 분만형태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차이 (n=86)

| 시기별     | 구 분        | M(±SD)     | df   | t     | p     |
|---------|------------|------------|------|-------|-------|
| 산후 1-2일 | 정상분만 초산모   | 52.2(±6.0) | 84.0 | 0.47  | 0.637 |
|         |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 51.5(±7.0) |      |       |       |
| 산후 4주   | 정상분만 초산모   | 54.9(±8.4) | 84.0 | -4.21 | 0.000 |
|         |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 61.6(±6.0) |      |       |       |

< 표 3 > 조사시기별 분만형태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아기와 동일시감 차이 (n=86)

| 시기별     | 구 분        | M(±SD)     | df   | t    | p     |
|---------|------------|------------|------|------|-------|
| 산후 1-2일 | 정상분만 초산모   | 32.6(±5.1) | 83.0 | 3.10 | 0.002 |
|         |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 29.3(±4.5) |      |      |       |
| 산후 4주   | 정상분만 초산모   | 32.4(±4.9) | 84.0 | 2.15 | 0.034 |
|         |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 30.4(±3.6) |      |      |       |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정상분만 초산모는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1988), Mercer와 Marut(1979)연구에서 정상분만 초산모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에 비해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점수가 높아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보다 긍정적이라고 한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영역을 분만과정(labor), 분만(delivery)과, 영아(baby)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분만영역과 영아영역에서 정상분만 초산모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현저히 긍정적인 지각을 나타냄으로써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같이 분만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정상분만 초산모는 자신의 분만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 분만경험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Mercer & Marut, 1979),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경우 마취와 수술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강화, 분만지연 등 분만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관계로 분만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형성된다고 발표한 Tilden(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전신마취를 한 초산모경우는 분만에 대해 통제력의 부족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Mercer와 Marut(1979), Wilmuth(197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영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정상분만 초산모는 분만후 즉시 영아를 보았고 영아를 처음 안아본 시간은 분만후 2시간이내였지만,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는 분만 2시간후에 영아를 처음 보았고 영아를 처음 안아본 시간은 분만후 6-12시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는 출산 즉시 신생아에게 주는 접촉행동, 언어적 표현, 눈맞추기와 같은 특정적 행위가 지연되거나 정상분만 초산모와 다른 분만경험을 호소한다는 조미영(1988), Mercer와 Marut(197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분만유형은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지각을 형성하는데 관계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들이 분만직후동안 정상분만 초산모에 비해 분만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하므로 이를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되도록 하기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즉 분만 과정을 초임부에게 설명해주고 분만과정과 분만 방법의 선택에 임부자신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여 자시느이 분만과정을 수용하여 통제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 분만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 2. 시간경과에 따른 정상분만 초산모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과 아기와의 동일시감의 차이 및 변화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산후 4주에 제왕절개분만 초산모가 정상분만 초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는 제왕절개분만 초산모가 정상분만 초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산후 4주에 제왕절개분만 초산모가 정상분만 초산모보다 어머니로서 자기정체감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분만 한 초산모는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다산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왕절개분만한 초산모는 기껏해야 2-3번의 출산만 가능하다는 점이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형성을 더 긍정적으로 형성시켰다고 사료된다. 뿐만아니라 제왕절개분만은 매우 어려운 분만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 즉, ‘어렵게 얻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애착이 증가되어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지만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이에 관련된 변수를 알아보는 것도 의의 있는 것이라고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제왕절개분만 초산모가 정상분만 초산모보다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자기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일반적인 특성은 결혼기간, 취업과 산전교육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기간이 길수록, 취업초산모일수록, 산전교육에 참여했을수록 긍정적인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취업초산모가 비취업초산모에 비해 결혼기간이 길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 긴장을 적게 느껴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고효정(1996)의 연구와 Hott(1980)의 아기 양육준비를 위한 산전교육은 어머니에 대한 준비교육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산후 1-2일은 두 집단간에 어머니로서 자기정체감은 정상분만 초산모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Rubin(1967a)에 의하면 산후 1-2일은 ‘소극기(taking in phase)’ 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측정되었기에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정상분만 초산모는 수술분만을 하지 않고 정상분만을 했기 때문에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에 비해 통제능력(Wilmuth, 1975)이 더 높아 평균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2-2을 검증한 결과 정상분만 초산모는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왕절개분만 초산모가 정상분만 초산모보다 부정적인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었는데, 초산모의 부정적인 분만경험지각은 어머니로의 역할 행위에 영향을 주어 모·아상호작용에서 영아의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인 장애를 가져오고,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조미영, 1988; Laufer, 1991; Mercer, 1981a,b; Rubin, 1962),

Mercer(1986a)는 어머니역할에 대한 양육태도, 영아의 기질, 영아의 질병, 문화, 사회경제적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경우 산후 1-2일보다 산후 4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을 나타내었다.

Mercer와 Ferketich(1995)는 135명의 경산모와 166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영아를 분만한 직후, 산후 1개월, 4개월, 8개월에 자기 보고식 방법에 의한 어머니 역할 능력을 분석한 결과 산욕초기와 1개월 보다는 4개월과 8개월에 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역할능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을 하는데 커다란 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점을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평균점수는 정상분만 초산모 경우 산후 1-2일 52.2점, 산후 4주 54.9점,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경우 산후 1-2일 51.5점, 산후 4주 61.6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이 형성되었던 것이 일치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머니로서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정상분만 초산모의 경우 어머니로서 아기와의 동일시감은 산후 1-2일에 평균 32.6점 산후 4주에 32.4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덜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고효정(1996), Walker 등(1986a, b)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경우 산후 1-2일에 평균 29.3점, 산후 4주에 30.4점으로 높아진 것은 산후 1-2일은 모자동실을 하고있지만 수술로 인해 모아상 호작용을 잘 하기 힘든 편이었고, 산후 4주에는 수술분만으로 인한 피로와 신체,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어 어머니로서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Mercer와 Ferketich(1995)는 어머니의 역할능력을 예측하는 요인 중에서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나머지 요인은 임신에 대한 준비성, 태아에 대한 애착, 임신의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중에 임신을 희망한 대상자는 정상분만 초산모 89.1%,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90.0%로 대부분 임신을 희망하였다.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어머니가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어머니가 되어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임신을 계획하지 않았던 산모는 임신의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체념적, 수동적으로 어머니가 되어 감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전환의 수용과정은 임신의 계획과 부모가 되려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고효정, 1996).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대부분 임신을 희망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과 아기와의 동일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Walker 등(1986a,b)은 64명의 초산모와 58명의 경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획득과 정체감 안정성과 변화를 분만후 1-3일과 4-6주에 조사한 결과(Osgood도구 사용)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에 아기에 대한 태도는 덜 긍정적이었다. 라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일치되었다.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계속적으로 발달 형성된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여, 분만유형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이 추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상분만 초산모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아기와의 동일시감)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분만 유형에 따른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은 정상분만 초산모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t=4.88, p=0.000$ ). 따라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집단보다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산후 4주에 제왕절개분만 초산모가 정상분만 초산모보다 더 긍정적인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21, p=0.000$ ). 따라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 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3. 정상분만 초산모는 제왕절개 초산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아기와의 동일시감을 나타내었다(산후 1-2일 :  $t=3.10, p=0.002$ , 산후 4주 :  $t=2.15, p=0.034$ ). 따라서 “정상분만 초산모집단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집단보다 산후 1-2일, 산후 4주에 어머니로서의 아기와의 동일시감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4.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의 경우 산후 1-2일보다 산후 4주에 유의한 차이( $t=7.96, p=0.000$ )를 나타내어 어머니로서 긍정적인 자기정체감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초산모의 분만형태에 따라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중요한 역할 전환시기에 건강관리 체계로부터의 지지와 산전·산후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초산모에게 긍정적인 분만경험지각과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전략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정상분만 초산모와 제왕절개분만 초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분만 경험에 대한 지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비교하였으므로 앞으로 분만유형에 따른 경산모간의 후속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연구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감형성 차이 및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에 대한 시간과 분만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고효정(1996).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김수지(1985). 간호이론. 이론:수문사, 231.
3. 김태임(1990).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 태도와 초기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혜원(1996). 초임부의 모성정체감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 대한산부인과학회(1997). 산과학 제3판. 서울:도서출판 칼빈서적, 5.
6. 박영숙(1987). 라마즈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간호학회지, 17(1).
7.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화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신기수(1996). 산모가 인지한 분만 지지자별 분만경험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9.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0. 안숙희(1990). 임부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분만경험지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안혜숙(1976). 산부의 간호요구와 간호원의 간호활동과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6(1), 51-57.
12. 이은숙(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 이은희(1995). 초산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 : 부모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4. 이해경(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조미영(1988). 초산모의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모아 상호작용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 정귀애(1994). 산전분만준비교육이 초산모의 분만진통, 불안 및 분만경험지각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7. 하영수, 이경혜(1992). 모성 및 부인간호학. 서울 : 신광출판사.
18. 허정원(1974). 임신과 분만시의 심리적 변화에 관련된 제요인. 공중보건잡지, 11(2), 217-220.
19. Aguilera, D. Messick, & Farrell. (1977). Crisis intervention : Theory and methodology. St. Louis : Mosby Co, 54.
20. Cranley, M. S., Hedahl, K. J., & Pegg, S. H. (1983). Woman's perception of vaginal and cesarean deliveries. Nursing Research, 32(1), 10-15.
21. Cropley, C., & Others (1976).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Current Practice Obsteric and Gynecological Nurse, 1, 16-28.
22. Curt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 efficacy, a Medit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23. Donna, C., Aguilera, J., M. M., & Marlene, S. (1961). Farrell, crisis intervention : Theory and methodology. New York : Hrune and Stratton Inc. 9, 18.
24. Eric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25. Fitzpartick, E., et, al. (1984). Maternity nursing 16th ed.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26. Georiannan, H. (1980). Maternal attitude in prepared and unprepared ceasrean deliver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al and Neonatal Nursing, Jul-Aug, 243-245.
27. Hoff, L. A.(1978). People in crisis : Understanding and helping, London : Addison - Wisley Publishing Co.
28. Jensen, & Bobask (1981). Maternity and gynecologid care. Sy. Louis : Mosby Co, 696-716.
29. Kitzinger, S. (1972). The experience of childbirth. London : Victor Hollancz Ltd.

30. Kitzinger, S. (1978). Pain in childbirth, *J. Med. Ethics*, 4, 119-121.
31. Laufer, A. B. (1990). Breast feeding : Toward resolution of the unsatisfying birth experience. *Journal of Nurse Midwifery*. 35(1), 42-45.
32. Lederman, R. P., Weigarten, C. G., & Lederman, E. (1981). Postpartum self evaluation questionnaire : Measures of maternal adaption. *Birth Defects original Article Series*, XYII(6).
33. Lederman, R. P., & Lederman, E. (1984). Prediction of postpartum mothering concern from prenatal adaptation scaled.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 Dublin, Ireland, September, 1983, 11-15, in Lederman, 1984.
34. Lindell, S. G. (1988). Education for childbirth : A time for chang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al and Neonatal Nursing*, Mar/Apri, 108-112.
35. Ludington-Hoe, S.(1977), Postpartum : Development of maternity. *AJN*77, 1171-1174.
36. Lynch, M. A., & Rovert, J.(1977). Predicting child abuse : Sing of bonding failure in maternity hospital. *Br. Med. J.*, 1, 624-626.
37. Marut, J. S., & Mercer, R. T. (1979).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Nurising Research*, 28, 260-266.
38. Mead, G. H. (196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 Mercer, R. T. (1981a). The nurse of maternal tasks of early postpartum. *Americal Journal of maternity child Nursing*, 6, 345.
40. Mercer, R. T. (1981b).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73-77.
41. Mercer, R. T. (1985). Relationship of the birth experience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73-77.
42.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5).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mothers; maternal competence during infanc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333-343.
43. Norr, K. L., Block, C. R., Charles, A. G., Meyering. S., & Meyer, T. (1977) Explaining pain and enjoyment in childbir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260.
44. Newton, L. D.(1983). Helping parents cope with infant crying. *Journal Gynecological Neonatal Nursing*, May/June, 199-204.
45. Osgood, C. E., Suj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vanam,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46. Reeder, S. J., Martin L. L., & Konak, D.(1992). *Maternal Nursing*(16th ed). Philadelphia : Lippincott.
47. Rubin, R. (1967a). Attainment of maternal role : 1. process. *Nursing Research*, 16, 237-247.
48. Sheehan, F. (1981). Assessing postpartum ajustment.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al adn Neonatal Nursing*, Jan/Feb, 19-22.
49. Walker, L. O. (1977). Investigating the semantic properties of two concepts. Unpublized manuscript. Available from the author at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Nursing, 1700 Red River St., Austin, TX 78701.

50.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a).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 68-71.

51.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b). Maternal identity and role attainment : Long term relations to children's development. Nursing Research, 43(2), 105-110.

52. Walker, L. O. (1992). Parent-infant nursing science : Paradigms, phenomena, methods, Philadelphia ; F. A. Davis Company.

53. Walker, L. O., & Monthermery, E. (1994). Maternal identity and role attainment : Long term relations to children's development. Nursing Research, 43(2), 105-110.

54. Wilmuth, L. R. (1975). Prepared childbirth and Concept of control.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al and Neonatal Nursing, 4(5), 38-46.

55. Zabielski, M. T. (1994). Recognition of maternal identity in preterm and fullterm mother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 22, 1-36.

#### **- Abstract -**

Key concept : Delivery Method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Identity

# **A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Mother According to Delivery Methods**

A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Mother According to Delivery Methods :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Cho, Sun Young • Koh, Hyo Jung

Cho, Sun Young • Koh, Hyo Jung :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mother("Myself as the Mother" and "My Baby") according to delivery

methods such as normal delivery and cesarean se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ccording to delivery methods showed that the primiparas who had normally delivered perceives the delivery experience more positively than those by cesarean section ( $t=4.88$ ,  $p=0.000$ ). This fact supported hypothesis 1 that "the primiparas group by normal delivery should perceive the delivery experience more positively than by cesarean section."
2. The primiparas who had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were more positive in the SD-Self score than those who had normally delivered at the time when four weeks passed after delivere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 $t=-4.21$ ,  $p<0.000$ ). Therefore, hypothesis 2-1 that "the primiparas group who had normally delivered should be more positive in the SD-Self 1-2 days and 4 weeks after delivery than one who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was rejected.
3. It was shown that the primiparas who had delivered normally were more positive in the SD-Baby 1-2 days 4 weeks after delivery than those who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after-delivery 1-2 days :  $t=3.10$ ,  $p=0.002$  and after-delivery 4 weeks :  $t=2.15$ ,  $p=0.034$ ). Based on this fact, hypothesis 2-2 that "the primiparas group who had delivered normally should be more positive in the SD-Baby 1-2 days and 4 weeks after delivery than those who had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was supported.
4. Primiparas who had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appeared to have a positive identity as the mother by showing a more significant difference ( $t=7.96$ ,  $p=0.000$ ) 4 weeks after delivery than 1-2 days after delivery.

In conclusion, we see that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mother were different according to delivery methods. Thus, it is required to devise a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to expand support from the health care system and opportunities to provide pre- and post-delivery programs so that primiparas can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a positive identity as the mother.

Based on conclusion stated abov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1. As this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mother between primiparas who had delivered normally and ones who had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the further study on comparison between multiparas who had delivered normally and ones who had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is needed.
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change in the formation of maternal identity.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 study is also needed to determine interaction between time for maternal identity and delivery methods.